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09. Vol. 20. No. 1. pp. 227~251.

청소년비행에 있어 낙인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 비공식 낙인을 중심으로*

박현수** · 박성훈*** · 정혜원****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종단적 자료를 이용해 낙인이론을 둘러싼 두 가지 핵심적 쟁점 사항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첫 번째는 낙인이 비행의 원인이 되는가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낙인이론의 핵심 중 하나인 누가 낙인을 당하는가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낙인에 대해 차별적 효과를 갖는가의 문제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횡단적 자료를 통해 낙인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자료(KYPS)를 통해 시간적 선후관계에 기초한 인과모형을 설정하여 비공식 낙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시간을 고려했을 때 계층적 지위에 따라 비공식 낙인의 변화와 차이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의 논의에서는 공식 낙인보다 비공식 낙인의 효과를 다루는 것이 낙인이론의 검증에 보다 부합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비공식 낙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교차지체 패널모형 및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로 낙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보다는 비행이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일수록 비공식 낙인의 경험 가능성이 더 크고, 비공식 낙인이 일단 형성된 이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청소년비행, 비공식 낙인, 교차지체 패널모형, 잠재적 성장모형

---

* 이 논문은 '대한범죄학회 2007년 후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 보완하였음.

** 충북대학교 강사, 사회학박사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 숭실대학교 강사, 사회학박사

Ⅰ. 서 론

아노미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하위문화이론, 사회통제이론과 같은 실증주의적 범죄이론은 범죄자와 비(非)범죄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전제 위에 범죄 및 비행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범죄예방과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범죄를 단지 법규범의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왜 범죄로 규정되는가 하는 범죄 및 일탈의 법적·사회적 성격에 대해서는 연구 영역 밖으로 취급하였으나, 이러한 경향은 낙인이론에 의해서 의문시되기 시작했다.

낙인이론은 일탈 혹은 비행을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시각에서 '상황정의' 또는 '타인의 반응'으로 이해한다(Liska, 1999; Cullen and Agnew, 1999). 이처럼 낙인이론은 일탈자라는 낙인의 '자기충족적 예언'이 일으키는 아이러니한 왜곡 현상과 법을 집행하는 공식적 통제기관(형사사법체계)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주요한 논문들(Lemert, 1951; 1967; Becker, 1973; Schur, 1969)의 발표 이후 범죄학 이론가들과 형사실무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Akers, 2004). 낙인이론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공식기관의 처벌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혹은 경찰의 체포 혹은 처벌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개념의 조작화 및 측정의 어려움, 경험적 연구결과들의 불일치성, 현실 사회정책에 적용 한계 등의 문제로 인해 1970년대 후반 이후 낙인이론에 관한 연구들은 퇴조하기 시작하였다.[1)]

사실 낙인이론에 대한 검증은 횡단적(cross-sectional) 자료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낙인이론가들의 주장대로라면 낙인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비행을 저지른 이후 낙인이 생기고 그러한 낙인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단적(longitudinal) 자료

1) 낙인이론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들에 함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차적 일탈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 일탈과 강자의 일탈을 경시한다", "낙인이론적 가설에서 암시되어 있는 인과관계 모델에 문제가 있다", "낙인이론은 개인적 행동에 적용할 때 예측력이 낮고, 사회적 관심의 측면에서 일탈에 대한 많은 문제에 적절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낙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은 여러 가지인데, 공식적 기구에만 관심을 집중한다"등의 내용이 비판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다(박승위, 1985).

는 비행과 낙인 등 여타 변인들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즉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발전범죄학의 논의를 비롯해 종단적 자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낙인이론의 주장과 가설들이 새롭게 해석되고 논의되었다(Paternoster and Iovanni, 1989; Braithwaite, 1995; Sampson and Laub, 1993; Triplett and Jarjoura, 1994). 예를 들어, 마쯔에다(Matseuda, 1992)는 통제기관에 의한 공식 낙인보다는 구조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비공식 낙인을 강조하기도 하였고,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 1989)는 재통합적 수치(reintegrative shaming)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구조의 특성에 따라 낙인의 과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하지만 낙인이론의 검증에 대한 국내 연구는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성식, 2007).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지난 2003년부터 수집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자료를 활용하여 낙인이론과 관련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시도한다. 먼저 낙인이론의 비판적 쟁점 중의 하나인 독립변인으로서의 낙인효과, 즉 낙인이 비행의 원인이 되는가와 관련한 시간적 선후 문제를 종단적 분석 중 하나인 교차지체 패널모형(cross-lagged panel model)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로 낙인이론의 핵심 중 하나인 누가 낙인을 당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낙인에 대해 차별적 효과를 갖는가의 문제를 시간 차원을 고려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처벌과 비행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공식 낙인이 아니라 비공식 낙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초기의 낙인이론에서는 낙인과정을 주로 공식적 통제기관에 국한함으로써 공식처벌 이전에 진행되었을 비공식 낙인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최근의 논의들에서는 처벌에 따른 공식 낙인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부모나 교사,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공식 낙인의 효과가 또 다른 비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Matsueda, 1992; 강세현, 1995; 이성식, 2007).

Ⅱ. 이론적 논의

낙인이론은 범죄원인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설명보다는 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비행을 저지르는가에 관심을 둔다. 특히 낙인이론은 과정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범죄이론과는 달리 범죄의 규정과 속성에 대해 상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왜 특정한 행동이 일탈로 규정되는가를 문제시하였다.

낙인이론은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낙인이 원인이 되어 후속 되는 범죄 및 비행이 일어나는 과정에 관심을 갖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행위나 어떤 사람이 일탈 또는 일탈자로 낙인찍히기 쉬운가라는 물음을 던짐으로써 낙인을 결과로 보는 입장이다. 첫 번째 관점이 낙인이론의 원래 낙인이론가들의 주된 관심이라면, 두 번째 입장은 낙인이론에서 비판범죄학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김준호, 1986: 110-111).

1. 비행원인으로서의 낙인

낙인이론에 따르면 공식 낙인 이전의 일탈자의 법위반은 비조직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드문 현상으로 여겨진다. 이들을 일탈이나 범죄경력이라는 보다 지속적인 범죄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는 공식적 통제기관과 사회구성원들의 비공식적 반응이다. 이러한 사회적 반응이 없다면 일탈은 간헐적이고 비조직적인 것으로 남기가 쉬울 것이다. 보다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일탈이 지속되는 것은 사회적 반응과 낙인에 의해 만들어진 이차적 일탈 이후이다. 따라서 이차적 일탈은 범죄자가 일탈자로 낙인찍히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부가적 일탈에 관여할 때 이루어진다(Akers, 2004). 낙인이론의 대표적 이론가 중의 한 사람인 레머트(E. Lemert, 1951)는 낙인의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일차적 일탈(primary deviance)과 이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을 구분하였다. 일차적 일탈은 다양한 원인들, 즉 사회적, 문화적, 심리학적, 생물학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인 반면, 이차적 일탈은 일탈을 저지름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 반응(societal reaction)에 대한 일종의 행위자의 적응방식이라는 이라는 주

장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일탈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니라는 레머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은 이차적 일탈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이차적 일탈이 일탈 정체성(deviant identity)을 고착화하는 기제(mechanisms)"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Davis, 1972: 452). 이러한 관점은 미드(G. H. Mead)로 대표되는 상징적 상호작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2)]

이러한 전통을 따라 낙인이론은 한 개인에 대한 낙인의 부정적 결과들(negative consequences)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고 있다. 최초 비행이라 할 수 있는 일차적 일탈은 상대적으로 덜 해로운 것, 특히 아이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놀이 또는 실수가 될 수 있고, 보다 큰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부도덕한 행위나 법규위반 정도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모,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사법기관의 초기 사회적 반응은 이들을 대체로 부정적이며, 사악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다. 이러한 낙인은 각 개인의 자아상(self-image)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낙인을 부여받은 청소년은 스스로를 불량 청소년 혹은 비행 청소년으로 여김으로써 미래에 더 큰 일탈, 즉 이차적 일탈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Matsueda, 1992).

이처럼 낙인이론은 "무엇이 일탈을 야기하는가"라는 질문보다 "누가 낙인을 지우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Liska, 1999; Cullen and Agnew,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인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들은 체포 혹은 처벌 이후의 낙인과 이후 범죄와의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 다시 말해, 비행에 대한 낙인의 독립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낙인의 독립적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결론은 다소 애매하다고 볼 수 있다. 낙인이 자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경우, 어떤 연구들에서는 이전의 비행행위를 통제했을 때 공식 낙인이 부정적 자아관념에 매우 미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ibbs, 1974; Hepburn, 1977). 반면 어떤 연구들에서는 보다 덜 심각한 비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Ageton and Elliott, 1974). 다른 한편으로 낙인이 이차적 비행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에서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Meade, 1974), 다른 연구에서는 이전 비행을 통제했을

2) 미드(Mead) 역시 일탈의 억제를 위한 사법기관의 적대적 반응은 범죄문제를 감소시키기보다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으며, 아마도 범죄계층(criminal class)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Matsueda, 1992: 1588).

경우 낙인의 영향력은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homas and Bishop, 1984; Ray and Downs, 1986). 발전범죄와 관련한 일부 연구에서는 경찰과 접촉 혹은 체포되었거나 처벌을 경험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범죄자 혹은 일탈자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속적인 범죄경력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Hagan and Palloni, 1990).

이처럼 낙인이 자아 또는 비행에 독립적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에 대해 에이커스(R. Akers, 2004)와 같은 학자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첫째로 낙인이론이 실제 일탈행동을 무시한다는 점, 둘째로 낙인과정에 의한 일탈 이미지가 일탈적 정체성과 역할로 강제된다고 보는 점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약자들이라도 반드시 일탈자라는 낙인의 적용에 그대로 복종하지는 않으며, 즉각적으로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반격을 가하고 거부하며, 부정하고 타협하기도 한다(Rogers and Buffalo, 1974). 더욱이 낙인은 애초에 행위를 만들어 내지 않으며, 사람들은 타인들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낙인과 상관없이 법이나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즉 낙인이론은 일탈자가 검거되고 낙인찍힌 뒤에도 작용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의 지속적인 영향을 본질적으로 무시한다고 비판한다. 때때로 실수가 있어 낙인이 잘못 적용되거나 일탈행위와 관계없는 기준이 낙인과정에 개입할 수는 있지만, 사회는 진공상태에서 개인을 일탈자로 파악하고 낙인찍으며 처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3)]

낙인이론가들의 무관심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낙인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에서 비행이나 범죄에 있어 낙인의 독립적 효과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 발전범죄학의 논의와 함께 횡단적 자료가 아닌 종단적 자료가 수집됨에 따라 낙인의 독립적 효과를 재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낙인과정에 있어서 차별적 요인

낙인이론의 중요한 기여는 일탈자라는 낙인이 사회적 구조 내에서 무작위적으로 (randomly)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는 자(the powerless), 약한 자(the

3) 에이커스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행위가 낙인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낙인이 행위를 만드는 것은 아니며, 낙인이 행위를 지속시킨다기보다는 계속되는 일탈이 낙인을 지속시키는 것이다"(Akers, 2004: 215).

disadvantaged), 가난한 자(the poor)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일깨웠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편견들, 즉 범죄자는 주로 낮은 계층, 소수인종, 도시거주자, 젊은 사람들이라는 인식들 때문에 그러한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더 크다(Simmons, 1965). 게다가 힘없는 사람들은 문화적, 경제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탈자로 낙인을 받기가 더 쉽다. 그리고 자기충족적 예언의 결과로 낙인이 찍힌 약자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일탈자로 바꾸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낙인이 반드시 일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상적 행위에 있어서도 긍정적 낙인이 형성되게 되면 일탈의 가능성은 줄어드는 반면 관습적이고 인습적인 행위가 증가할 수도 있다(Matsueda, 1992: 1588).

이와 같이 낙인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낙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소속된 집단의 사회적 위치는 낙인이 차별적으로 부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낙인이론은 계층, 인종과 같은 사회적 특성에 기초한 낙인의 차별적 적용을 기대하며, 통제기관이 사회내의 약자들에게 낙인을 차별적으로 적용한 결과로써 일탈을 설명한다. 특히 교육수준, 재정규모, 직업위세와 같은 계층적 특성에 기초한 공식 낙인의 차별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시각은 이후 비판범죄학에도 이론적 단초를 제공하였다.[4] 하지만 낙인의 계층적 차별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에서 낙인이론의 주장은 대체로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미국에서의 연구결과 가운데 3분의 1은 계층에 따라 사법기관의 대응이 다르다는 결과를 제시한 반면, 3분의 2는 계층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체포나 기소, 형량의 선고는 계층, 인종에 의한 설명보다 죄질에 의한 설명력이 더 큰 편이며, 일반적으로 경범죄자가 가벼운 형량을 받고,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곽대경 외, 2007).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공식 낙인보다는 오히려 비공식집단인 부모, 학교선생, 친구와 같은 주위사람들의 비공식 낙인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Paternoster and Iovanni, 1989; 강세현, 1995; 이성식, 2006). 예를 들어, 마쯔에다(Matsueda, 1992)는 부모에 의한 비공식 낙인에 초점을 맞추어 자녀가 비행을 저지르거나 관습적

4) 낙인이론이 연구 대상을 범죄행위에서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 바꾸어 놓았다면, 비판범죄학은 한걸음 더 나아가 단순한 사회적 반응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와 사회통제의 기제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사회통제기제 중 공식 통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범죄행위보다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그리고 범죄의 원인 규명보다는 사회체제와 범죄의 생산·분배·통제와의 역동적 관계가 주된 연구 관심사로 부각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박성훈, 2001).

(conventional) 행위를 했을 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생각은 구조적 조건(structural conditions)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 즉 도시에 살고, 소수인종이며, 하층계급이고, 나이가 좀 많은 청소년일수록 그 부모 역시 자신의 자녀를 일반청소년으로서 보다는 비행청소년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견은 결국 자녀들의 자아관념에 영향을 미쳐 나중에 비행을 일으킬 수도 있고, 긍정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5)]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교 선생님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거나 친구로부터 소외되어 친구와 친밀한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학교 선생님 또는 친구들로부터 문제아라고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eimer and Matsueda, 1994). 최근 이성식(2007)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유대나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비행경험이 있고, 비행친구가 있는 청소년들이 비공식 낙인을 매개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위로부터 비공식 낙인을 지각할수록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비행친구를 사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 1989)는 비공식적 제재로 수치심(shaming)을 언급하였다. 그는 가정, 학교, 사회 등 인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면 어디든지 잘못된 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통제를 가하게 되는데, 이 때 통제받은 사람들은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 기존의 관계 속으로 재통합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사회관계로부터 멀어져서 버려진 존재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즉 통제를 통해 생겨난 수치심이 하나의 낙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청소년들은 사회나 학교에서 받는 공식적 제재보다는 부모, 친구로부터 받게 되는 기대감 혹은 포기와 같은 비공식적 반응과 비행 간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청소년을 능동적 주체로서보다는 보호해야할 수동적 객체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문제 행동도 가족의 사회적 조건 안에서 다루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에 의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주변의 시각 역시 차이가 생긴다.

---

5) 그의 후속 연구(Bartusch and Matsueda, 1996)에서는 이러한 부모의 인식이 성(gender) 차이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을 밝혔다.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낙인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는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비행에 대한 부모의 오해 역시 남자청소년들의 경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의 설정

앞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낙인이론과 관련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낙인의 독립효과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낙인이론가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서의 낙인을 설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마다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낙인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의 경우 낙인의 영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오히려 낙인이 비행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1. 비공식 낙인은 (이차적) 비행의 원인으로서 비행에 선행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낙인이론이 다른 일탈이론과 차별적으로 기여한 바는 낙인의 과정에 '권력'이 개입하고 작동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즉 낙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위에 따라 낙인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2.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일수록 비공식 낙인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가설에 대해 한국청소년패널데이터(KYPS)를 가지고 시간적 선후관계에 기초한 인과모형을 설정하여 비공식 낙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층적 지위가 비공식 낙인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가설검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중등패널자료 1차부터 4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중등패널의 모집단은 2003년 4월 1일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한 전국(제주도 제외)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이다(2007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1차년도 조사에서는 층화다단계 군집표집방법(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에 따라 서울, 수도권, 각 시도 등 지역별 범주를 설정하고, 각 지역범주별로 모집단 인구비율에 따라 학교의 수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출한 학교에서 1학급씩을 추출하여 집단면접조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2차년도 이후의 조사에서는 1차년도의 설문에 응답한 학생을 추적하여[6] 개별면접조사를 하였다(이경상 외, 2004).

특히 이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비행을 저질렀다고 응답한 학생 가운데 4차년도 조사까지 모두 참여한 학생을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왜냐하면, 패널조사 이전에 저지른 비행으로 인해 비공식 낙인을 경험하였지만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경우, 비행과 낙인 간의 선후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 변인의 측정

1) 비행

비행변인은 '담배 피우기'와 '술 마시기'와 같이 비교적 사소한 비행을 제외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담배 피우기'와 '술 마시기'는 사소한 비행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에 따른 낙인이 부여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행변인은 '무단결석',

6)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표본유지율은 2차년도 93.1%, 3차년도 90.6%, 4차년도 90.5%로, 전반적인 패널유지율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출 경험', '성관계 경험',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남을 협박하기',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그리고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로 측정하였다. 각 비행의 척도는 '전혀 없음', '1-2번', '3-4번', '5-11번', '12번 이상' 등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7)]

2) 비공식 낙인

낙인변인은 공식 낙인이 아닌 비공식 낙인으로서 '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주위 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8)]

3)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버지의 학력수준(학교급)'과 '가구 월평균 소득'으로 구성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1차년도의 값을 사용하였다.[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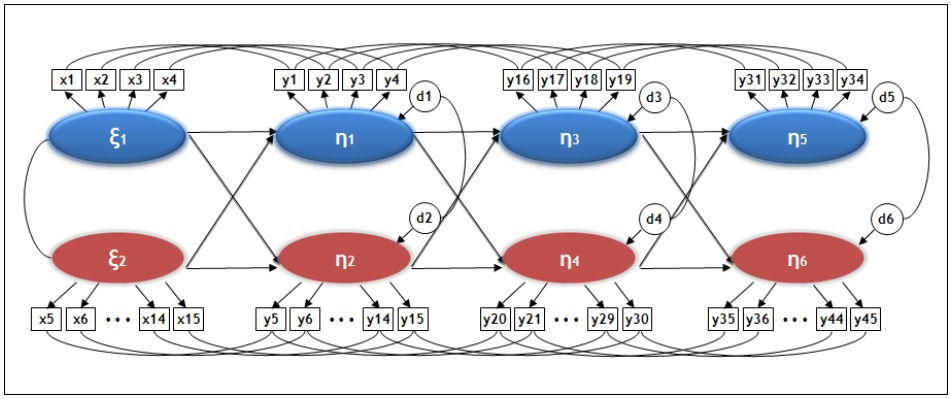
7)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실제 설문에서는 비행관련 변인을 비행 경험의 유무, 그리고 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 그 횟수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비행 경험이 없는 경우를 1점으로, 비행경험이 있는 경우 횟수에 따라 2점부터 5점까지 재구성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1차년도 .510, 2차년도 .731, 3차년도 .667, 그리고 4차년도 .605로 다소 낮았다.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비행에 포함된 변인들이 상대적으로 사소한 비행부터 심각한 비행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낙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행을 통해 부여되었는지에 대한 문항이 없기 때문에 이들 비행항목을 모두 포함하였다.

8) 비공식 낙인은 객관적 낙인과 주관적 낙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낙인이란 주위사람들에 의한 직접적인 낙인이고, 주관적 낙인이란 자신이 인식하는 주위사람들의 낙인정도이다(Triplett and Jarjoura, 1994).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 낙인을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주관적인 낙인으로 정의하여 변인을 측정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1차년도 .880, 2차년도 .912, 3차년도 .916, 그리고 4차년도 .919로 나타났다.

9) '가구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각 시기별로 표준화한 후에 1차년도와 2차년도, 2차년도와 3차년도, 그리고 3차년도와 4차년도를 Paired T-Test 방법을 통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시기별 '가구 월평균 소득'이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였다.

3. 분석모형 및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석 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s) 가운데 두 가지 응용모델이다. 우선 비공식 낙인과 비행 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차지체 패널모형(cross-lagged panel model)[10]을 사용하고자 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교차지체 패널모형

교차지체 패널모형은 단일방향적 인과관계(unidirectional causality)에서와 같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고, 그 반대의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 분석방법과는 다르다. 따라서 교차지체 패널모형은 종단적 자료를 분석하는 주된 동기 중의 하나로 대상변인들 간의 인과적 순서를 검증하는데 유용하다(Finkel, 1995).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낙인의 계층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10) 낙인과 비행 간의 인과분석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은 t-1년도 비행이 t년도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과 t-1년도 낙인이 t년도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경로계수의 비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낙인과 비행 간 경로를 동시에 비교하는 방법, 또는 낙인의 경로모델과 비행의 경로모형 각각을 비교하여 보다 나은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연구자들이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해 본 결과, 경로의 유의성은 두 가지 방법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판단하기에 일련의 단계적 분석보다는 모든 시점의 변인과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교차지체 패널모형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model)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11)]

패널자료와 같은 종단적 자료가 횡단적 자료를 통해서는 살펴보기 어려운 인과적 설명이라든지 비행의 지속 및 발전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장점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적 자료의 분석에서도 몇 가지 근본적인 방법론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김준호 외, 2006). 잠재성장모형이 유용한 이유는 종단적 연구의 근본적 문제점, 예를 들면 초기값의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변화량이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Ⅳ. 결과 분석

1. 비공식 낙인과 비행의 인과적 분석

비행과 비공식 낙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결과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우선 t-1년도의 낙인이 t년도의 낙인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그 영향력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0.461→0.437→0.515). 따라서 전년도 낙인이 다음년도 낙인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비행의 경우에도 t-1년도의 비행이 t년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0.425→0.442→0.710).

다른 한편으로 t-1년도의 낙인이 t년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1차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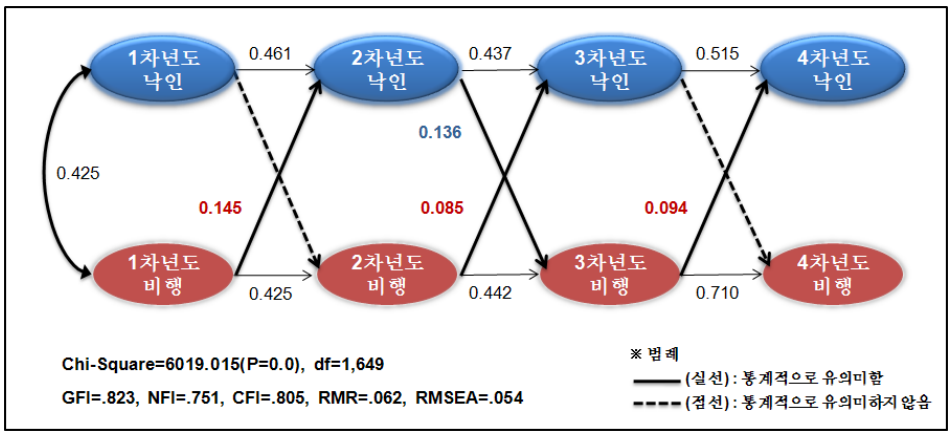
11)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의 변화(t시점 → t+1시점)에 따른 개별사례의 변화와 개별사례 간 변화의 차이를 설명하는 독립변인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Duncan et al, 1999). 동일시례를 4년 동안의 시간에 따라 반복 측정한 종속변인 Y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Li et al, 2001). 여기서 τ 1은 초기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이고, Λ 행렬은 변화의 형태나 시간을 나타내는 계수이며, η 1i과 η 2i는 개인의 초기수준 값과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화율(기울기)의 잠재변인이다. 그리고 ε i는 측정오류를 의미한다. 변화모형은 Λ 행렬의 계수를 특정 값으로 지정함으로써 변화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독립변인의 효과에 따른 변화에 대한 대립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begin{pmatrix} y_1 \\ y_2 \\ y_3 \\ y_4 \end{pmatrix} = \begin{pmatrix} \tau_1 \\ \tau_2 \\ \tau_3 \\ \tau_4 \end{pmatrix} + \begin{pmatrix} 1 & t_1 \\ 1 & t_2 \\ 1 & t_3 \\ 1 & t_4 \end{pmatrix} \begin{pmatrix} \eta_{1i} \\ \eta_{2i} \end{pmatrix} + \begin{pmatrix} \varepsilon_1 \\ \varepsilon_2 \\ \varepsilon_3 \\ \varepsilon_4 \end{pmatrix}$$

$$Y_i = \tau_y + \Lambda_y \eta + \varepsilon_i$$

도 낙인이 2차년도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3차년도 낙인이 4차년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차년도 낙인은 3차년도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0.13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t-1년도의 비행이 t년도의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든 경로의 계수 값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0.145→0.085→0.094).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t-1년도의 낙인이 t년도의 비행에 대체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t-1년도의 비행은 t년도의 낙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낙인이 비행을 설명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비행이 낙인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낙인이 비행을 유발시킨다는 낙인이론가들의 주장보다 오히려 다른 요인들에 의해 비행이 유발될 수 있으며, 비행의 결과로서 낙인이 형성된다는 연구결과(Wellford, 1975: Smith and Paternoster, 1990; Akers, 2004)가 보다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2] 낙인과 비행의 인과적 분석 결과

그러나 2차년도와 3차년도만을 비교했을 경우, 낙인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0.136)에 비해 비행이 낙인에 미치는 효과(0.085)가 상대적으로 작아 낙인의 영향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2차에서 3차년도의 시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이므로 진학하는 학교, 새롭게 사귄 친구, 진학에 따른 가족의 기대변화

등이 청소년들의 비공식 낙인(부정적 자아)에 강하게 영향을 주어 새로운 비행의 가능성을 증대시켰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2. 비공식 낙인과 비행의 변화양상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청소년비행과 낙인의 관계에서 대체로 낙인의 독립적 효과보다는 비행의 종속적 결과로서 낙인이 보다 설득력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낙인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사회계층에 따른 낙인의 효과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 문제는 낙인이론이 다른 이론과 갖는 중요한 차별적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애초에 낙인이론가들이 낙인의 인과적 선행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누가 낙인을 찍고, 누가 낙인을 찍히는가와 같은 비행을 둘러싼 권력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낙인의 계층적 차별 효과에 대한 검증이야말로 낙인이론이 독창적으로 주장하는 바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비행과 낙인이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변화가 있는지, 만일 변화가 있다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비행은 자유모수 변화모형을, 낙인은 선형 변화모형을 적용하여[12] 분석에 사용될 변인들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살펴보았다(표 1. 참조).

비행의 경우에는 초기값(2.789)과 변량(8.726)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초기값의 변량이 상대적으로 커 청소년들 간에 많은 개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행의 변화율 평균(-1.647)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운데 기울기가 음(-)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 1차년도 이후의 비행은 감소하고 경향이 있음을

12) 잠재성장모형의 변화모형은 무변화모형, 선형 변화모형, 자유모수 변화모형 등을 비교함으로써 변화의 형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모형을 찾을 수 있다. 무변화모형은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모두 0으로 놓음으로써 전혀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한 모형이며, 선형 변화모형은 변화량의 요인계수를 0, 1, 2, 3으로 고정하여 4년 동안의 변화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한 모형이다. 반면, 자유모수 변화모형은 1차년도의 요인계수를 0으로, 그리고 2차년도는 1로 고정하지만 3차년도와 4차년도의 요인계수는 미리 고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설정한 모형이다. 분석모형에 대한 비교 결과, 모형적합도 측면에서 비행은 자유모수 변화모형이, 낙인은 선형 변화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델적합도(goodness of fit)를 보였다.

말해준다. 그리고 변화율의 변량(5.651)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나, 청소년들 사이에 비행이 줄어드는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0.879)는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1차년도의 비행수준이 높았던 학생들은 이후 비행의 감소경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1차년도의 비행수준이 낮았던 청소년들은 이후 비행의 감소경향이 빠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 비행과 비공식 낙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평 균(mean)	변량(variance)
비행 (delinquency)	초기값(Intercept)	2.789***	8.726***
	변화율(Slope)	-1.647***	5.651***
	초기값-변화율의 상관계수	-0.879***	
비공식 낙인 (informal labeling)	초기값(Intercept)	8.064***	6.711***
	변화율(Slope)	-0.089*	0.726***
	초기값-변화율의 상관계수	-0.564***	

*p<0.05, **p<0.01, ***p<0.001

다음으로 낙인의 초기값 평균과 변량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1차년도의 평균값(8.064)과 변량(6.711)을 통해 볼 때, 청소년들이 낙인을 경험한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변화율의 평균(-0.089)은 p〈0.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1차년도 이후 낙인은 약간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변화율의 변량(0.726)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비행과 마찬가지로 1차년도 이후 청소년들 사이에 낙인이 줄어드는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0.56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운데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 1차년도에 낙인의 정도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들은 이후에도 낙인의 감소경향이 느리게 진행되는 반면, 1차년도에 낙인의 정도가 낮았던 청소년들은 이후 낙인의 감소경향이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비행과 낙인의 경우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그 특징으로는 첫째 비행과 낙인 모두 학생 개인별 차이를 보이고 있고, 둘째 비행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비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애초에 비행을 많이 저질렀던 학생들은 이후에도 감소율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며, 셋째 낙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애초에 낙인을 경험한 정도가 높은 학생들은 이후에도 낙인의 경험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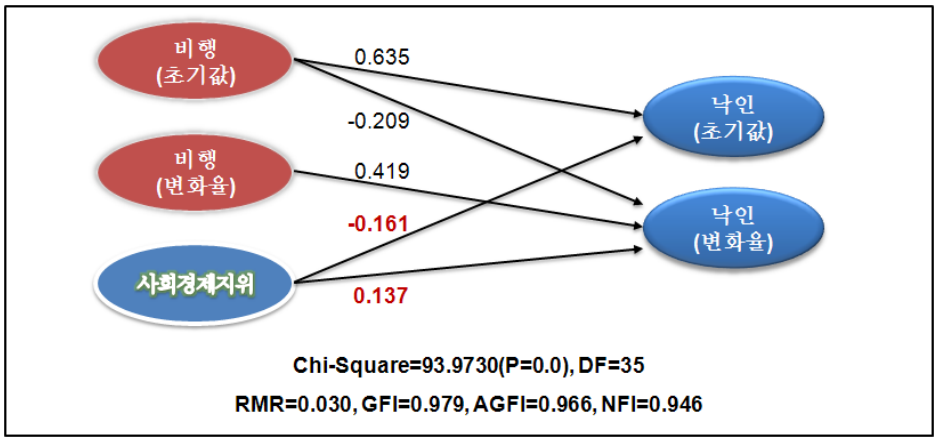
3. 계층에 따른 낙인의 차별 효과

비공식 낙인을 느끼거나 경험한 학생들 가운데 이후에도 낙인이 지속되는 학생들은 어떤 집단의 학생들인가? 낙인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낙인이 지속되는 집단은 사회적 편견이 짙게 드리운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소수인종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단의 속성 가운데 부모의 사회계층적 지위라는 변수를 통해 낙인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층계급의 학생들일수록 비공식 낙인의 효과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앞서 비행이 독립변인으로, 낙인이 종속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그림 3]에서와 같이 비행을 통제변인으로 두고 부모의 사회계층적 지위가 종속변인으로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낙인의 초기값(1차년도 낙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비행 초기값(1차년도 비행)의 영향력(0.635)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1차년도 비행의 수준이 높을수록 1차년도 낙인의 경험정도 역시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낙인의 초기값(1차년도 낙인)과 부(-)적인 관계(-0.161)를 보였는데, 이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일수록 1차년도 낙인의 경험정도가 높은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은 낙인의 경험정도가 낮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1차~4차까지 낙인의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비행 초기값(1차년도 비행)은 부적 관계(-0.209)를 나타내, 1차년도의 비행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이후 낙인의 감소율은 느리게 진행되는 반면, 1차년도에 비행을 덜 저지른 경우에는 낙인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1차~4차까지 비행의 변화율은 1차~4차까지 낙인의 변화율과 정적 관계(0.419)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1차년도 이후의 비행이 빠르게 감소한다면 1차년도 이후의 낙인 역시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1차~4차까지 낙인의 변화율과 정적 관계(0.137)로 나타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1차년도 이후 낙인의 경험정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계층에 따른 낙인의 차별 효과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결과는 같은 수준의 비행을 저지른 학생들이라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일수록 이후 낙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경험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에 비해 더 클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낙인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하층에 속하는 가구의 학생들일수록 비행을 저지른 경우 부모나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문제 학생 또는 비행청소년으로 낙인을 찍힐 가능성이 더 크고, 동시에 이러한 낙인은 이후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낙인이론은 어떤 한 개인이 범죄자나 일탈자가 되는 과정, 즉 일탈 및 일탈자에 대한 정의나 낙인 이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process) 중심의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낙인이론가들의 부인과 변명에도 불구하고 낙인이론의 주장 속에는 낙인이 비행(특히 이차적 일탈)에 선행하는 원인이 된다는 인과모형에 대한 가정이 함축되어 있다. 낙인이론의 비판가들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낙인이론은 실제 일탈 행위를 무시하고 있으며, 일탈적 정체성과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서 범죄나 일탈이 낙인의 결과라기보다는 낙인이 범죄나 일탈의 결과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낙인의 독립적 효과에 대해 경험적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결론이 일관되지는 않았다.

낙인이론을 둘러싼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낙인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과연 낙인의 과정에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험적 연구들은 상반된 결론을 내 놓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낙인이론을 재해석하거나 새롭게 보완하고자 하는 이론적 노력들이 있었고, 패널데이터와 같은 종단적 자료들이 축적되면서 이러한 낙인과 비행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가능해졌다. 또한 종단적 자료를 통해 낙인의 차별 효과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가능해졌다. 이 연구에서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낙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낙인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종단적 분석방법을 통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낙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보다는 비행이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낙인이 비행을 유발시킨다는 낙인이론가들의 주장보다 오히려 다른 요인들에 의해 비행이 유발될 수 있으며, 비행의 결과로서 낙인이 형성된다는 낙인이론에 대한 비판가들의 입장이 보다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2차년도와 3차년도만을 비교했을 경우 낙인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학시기와 같은 코호트 효과가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시간에 따른 낙인과 비행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볼 때 비행과 낙인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1차년도에 낙인을 경험한 정도가 큰 학생들의 경우 낙인의 감소경향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비공식 낙인이라고는 하지만, 한번 훼손된 자아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고 하겠다.

셋째로, 이러한 비공식 낙인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그 양상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일수록 낙인의 경험정도가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중요한 발견은 같은 수준의 비행을 저지른 학생들이라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일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낙인에 대한 감정이나 경험이 급속히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일수록 시간이 흐르더라도 낙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경험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에 비해 더 클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결론적으로 낙인이론과 관련한 두 가지 쟁점 가운데 낙인의 독립적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바대로 비행의 결과로서 낙인이 발생된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낙인의 차별적 효과에 있어서는 낙인이론가들의 주장대로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문화적 소외 계층일수록 비행청소년으로 낙인을 찍힐 가능성이 더 크며, 더욱 심각한 것은 한번 각인된 낙인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사법체계와 같은 공식적 통제기관에 의한 공식 낙인과는 별개로 무심코 저질러지는 가족이나 학교로부터의 비공식 낙인의 예방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강세현(1995), 청소년비행의 비공식적 통제와 낙인의 효과: 가정, 학교, 사법기관에서의 통제경험의 관계, **한국사회학, 제29권**, pp. 147-170.

곽대경 외(2007),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청목출판사.

김준호(1986), 범죄사회학 이론의 흐름, **형사정책, 제1권**, pp. 95-121.

김준호 · 박현수 · 이윤영 · 최수형 · 박성훈(2006), 패널연구를 통해 본 종단적 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한국사회, 제7권 제1호**, pp. 201-230.

박승위(1985), 낙인론의 주요관점과 한계, **인문연구, 제7권 제1호**, pp. 235-262.

박성훈(2001), **사회경제적 지위와 형사처벌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상 · 조혜영 · 박현수(2004),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II: 조사개요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성식(2006),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주요이론들의 검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pp. 5-33.

이성식(2007), 청소년비행과 비공식 낙인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pp. 1005-1127.

Akers, Ronald L.(2004),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4th ed.). 민수홍 외 공역(2005), **범죄학 이론**, 서울: 나남출판.

Bartusch, Dawn J. and Ross L. Matsuda(1996), Gender, Reflected Appraisals, and Labeling: A Cross-Group Test of an Interactionist Theory of Delinquency, *Social Forces Vol. 75 No. 1,* pp. 145-177.

Becker, Howard S.(1973),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Y: The Free Press.

Braithwaite, John(1989), *Crime, Shame and Reintegrata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aithwaite, John(1995), Reintegrative shaming, republicanism, and policy, pp. 191-204 in Hugh Barlow(ed.), *Crime and Public Policy: Putting Theory to Work*. Boulder. CO: Westview Press.

Cullen, Francis T., and Robert Agnew(1999), *Criminological Theory: Past to Present*. Los Angeles, California: Roxbury Publishing Company.

Davis, Nanette J.(1972), Labeling Theory in Deviance Research: A Critique and Reconsideration,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 13,* pp. 447-474.

Duncan, Terry E., Susan C. Duncan, Lisa A. Strycker, Fuzhong Li, and Anthony Alpert(1999),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Finkel, Steven C.(1995), *Causal Analysis with Panel Data.* Sage Publication.

Gibbs, Leonard E.(1974). Effects of Juvenile Legal Procedures on Juvenile Offenders' Self-Attitud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11,* pp. 51-55.

Hagan, John and Alberto Palloni(1990), The Social Reproduction of a Criminal Class in Working-Class London, circa 1950-198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6,* pp. 265-300.

Heimer, K. and R. Matsueda(1994), Role-Taking, Role Commitment, and Delinquency: A Theory of Differential Social Contro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9,* pp. 365-390.

Hepburn, John R.(1977), The Impact of Police Intervention upon Juvenile Delinquents, *Criminology, Vol. 15,* pp. 235-262.

Lemert, Edwin M.(1951), S*ocial Pathodology*. New York: McGraw Hill.

Lemert, Edwin M.(1967),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Li, Fuzhong, Terry E. Duncan, Susan C. Duncan, Fan Yang-Wallentin, Alan C. Acock, and Hyman Hops(2001), *Interaction Models in Latent Growth Curves, New Developments and Techniq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 Marcoulides and Randall E. Schumacker(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Liska, Allen E., Messner, Steven F.(1999), *Perspectives on Crime and Deviance(3rd ed.).* 장상희 역(2001), 일탈과 범죄사회학, 서울: 경문사.

Matsueda, Ross L.(1992), Reflected Appraisals, Parental Labeling and Delinquency:

Specifying a Symbolic Integrationist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 pp. 1577-1611.

Meade, Anthony C.(1974), The Labeling Approach to Delinquency; State of the Theory as a Function of Method, *Social Forces, Vol. 13,* pp. 83-91.

Paternoster, Raymond and LeeAnn Iovanni(1989), The Labeling Perspective and Delinquency: An Elaboration of the Theory and an Assessment of the Evidence, *Justice Quarterly, Vol. 6,* pp. 359-394.

Ray, Melvin C. and William R. Downs(1986), An Empirical Test of Labeling Theory Using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23,* pp. 169-194.

Rogers, Joseph W. and M. D. Buffalo(1974), Fighting back: Nine modes of adaptation to a deviant label, *Social Problems, Vol. 22,* pp. 101-118.

Sampson, Robert J. and John H. Laub(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imons, J. L.(1965), Public stereotypes of deviants, *Social Problems, Vol. 13,* pp. 223-232.

Smith, Douglas A. and Raymond Paternoster(1990), Formal processing and future delinquency: Deviance amplification as selection artifact, *Law and Society Review, Vol. 24,* pp. 1109-1131.

Thomas, Charles W. and Donna M. Bishop(1984), The Effect of Formal and Informal Sanctions on Delinquency: A Longitudinal Comparison of Labeling and Deterrence Theories, *Criminology, Vol. 75,* pp. 1222-1245.

Triplett, Ruth A. and G. Roger Jarjoura(1994), Theoretical and Empirical Specification of a Model of Informal Labeling,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Vol. 10,* pp. 241-276.

Wellford, C.(1975), Labeling Theory and Criminology, *Social Problems, Vol. 22,* pp. 313-321.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Informal Labeling in Juvenile Delinquency

Park, Hyun-Soo* · Park, Seong-Hoon** · Jung, Hye-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wo controversial issues related to labeling theory by using longitudinal data. The first issue i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abeling and the delinquency itself. The second issue is in relation to whom is going to be labeled as a delinquent. Most previous studies have used cross-sectional data for their analyses. For this study, however, we used longitudinal data, I from the KYPS (Korea Youth Panel Survey). Nevertheless, since recent studies on labeling theory have focused on informal labeling rather than formal labeling, and have concluded that using informal labeling was the better way to examine labeling theory, this research also focused on the issue of informal labeling.

In this vein, we investigated whether informal labeling has any effect on delinquency and have tried to determine whether the effect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status of juveniles while also considering time-dimensions. As a result of using a cross-lagged panel model and latent growth model, we two important findings were made.

The first is that the effect of delinquency on labeling was relatively greater than that of labeling on delinquency. The second is that juveniles whose parents had lower socio-economic status tended to experience informal labeling more frequently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h. D. in Sociology
** Korea University
*** Soongsil University, Ph. D. in Sociology

and once they are stigmatized by the people around them, the labeling effect did not disappeared easily.

Key Words : delinquency, informal labeling, cross-lagged panel model, latent growth model

투고일 : 12월 14일, 심사일 : 1월 23일, 심사완료일 : 2월 11일